

기획조사 06-037

# 2006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기획조사06-037

---

# 2006년 상반기 對韓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kotra** 통상전략팀

# 목 차

[요 약]	1
1. 최근 국제통상환경	4
2. 2006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14
가. 총 괄	14
나. 국별 동향	18
3. 2006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42
가. 총 괄	42
나. 주요국별 전망	45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61

## 요 약

### 1. 최근 국제 통상 환경

#### □ WTO에서 허용한 수입규제 조치의 활용

##### ○ 반덤핑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5까지 총 41개국에 의해 2,840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중국(469건), 한국(218건)은 최대 피소국
- 2001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인도, 미국, EC 주요 반덤핑 활용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등 주요 반덤핑 피소국의 반덤핑조사건수는 크게 낮아지지 않음.

##### ○ 세이프가드

- 2001,2002년도의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대폭 감소
-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복잡한 산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서 주로 활용

##### ○ 상계 관세

- 2005년 중 총 6건, 2004년 중 총 8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이는 2003년 총 15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임.
- 지금까지 EC, 캐나다 등은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status)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나, 동 입장이 변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완만히 증가할 가능성 있음
- 미국은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회 및 제조업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양국간 통상마찰 확대를 피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조치 발동 가능성 낮음.

- 섬유쿼터 폐지 이후, 중국산 의류 시장점유율 급증
  - WTO 섬유협정(ATC)가 종료됨에 따라 각국은 섬유쿼터제를 2005.1.1일부로 완전 폐지함.
  - 섬유쿼터 해제 이후, 각국에서 중국산 의류의 시장점유율 급격히 증가함.
  - 美섬유업계는 WTO협정 차원에서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으로, 美정부에게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DDA협상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 2. 2006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 2006. 6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으로부터 총 1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2002년 131건 → 2003년 133건 → 2004년 130건 → 2005년 120건 → 2006년 상반기 11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99건, 세이프가드 6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상계관세 3건 등임.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3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이 30건,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8건, 기타 12건 등임.
  - 국별로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및 인도 17건, 호주 10건, EU 8건, 터키 및 남아공 6건 순임.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피소건은 총 4건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전기전자1건, 기타 1건이며, 피소형태는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임.

□ 2005년 중 종료된 수입규제 조치는 12건임

### 3. 2006년도 하반기 전망

□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추세, 자유무역협정 체결 증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입규제조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국에서는 특정 수입급증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 상존

○ IMF는 2006년 세계경제가 4.8% 성장할 것으로 예측,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는 2006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국가들의 자유무역정책기조 확대 예상

- 2006. 3월 기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임.

○ 대체로 중국산 저가수입품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나, 우리상품에 대한 동반규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경우, 중국산 의류에 대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동 여파로 한국산 의류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부국가의 경우 국내산업의 요구나 실업감소 등의 정책목적 을 달성하기위해 신규수입규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남아공의 경우, 한국산 제지류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인도네시아는 철강, 섬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 1. 최근 국제통상 환경

---

##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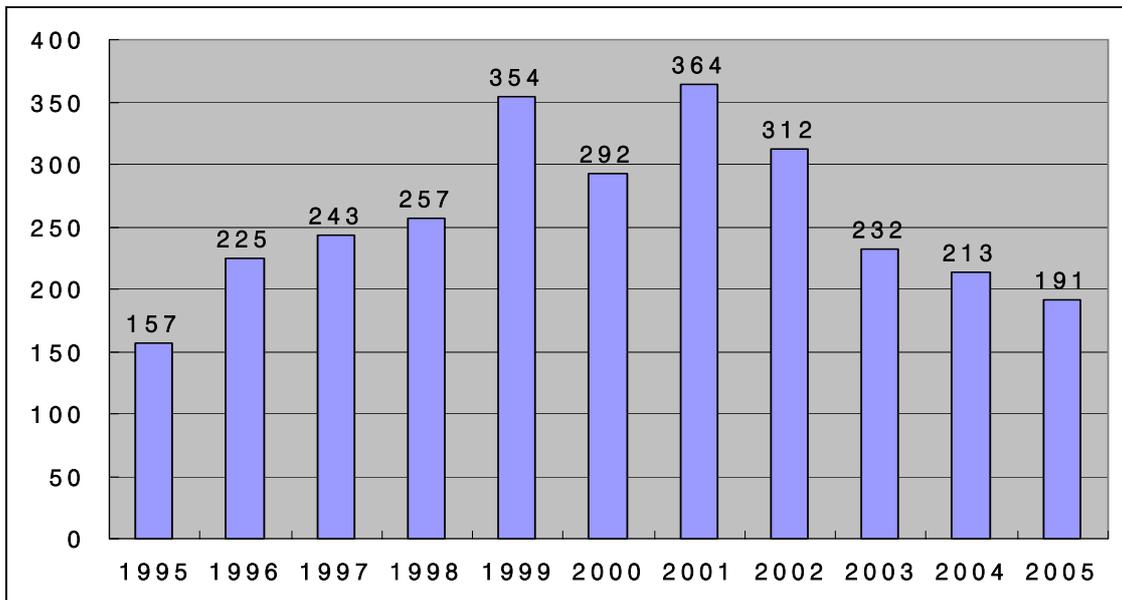
### [ 반덤핑 ]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5년까지 반덤핑 조치 2,840건 기록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전체 41개국<sup>1)</sup>에 의해 총 2,840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05년에는 총 191건을 기록하였음.

####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단위 : 건)



\*주 :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임.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전체 2,840건 중 469건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된 조사이며, 한국은 218

---

1) EU는 1개국으로 간주하나, 슬로베니아·폴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은 EU 가입 이전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것을 감안 개별국으로 집계

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됨

- 최근 3년 반 동안,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은 인도, 미국, EC 등이며, 주요 피소국은 중국, 한국, 미국 등으로 나타남.
- 2002년부터 2005년 동안 10대 발동국 중심,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발동국 현황>

순 위	'02		'03		'04		'05		누계치 ( '02+'03+'04+'05상)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인도	81	인도	46	EC	30	인도	25	인도	173
2	미국	35	미국	37	중국	27	중국 EU	24	미국	110
3	중국	30	중국	22	미국	26	남아공	23	중국	90
4	태국	21	한국	18	터키	25	미국 터키 아르헨 이집트	12	EC	81
5	EC	20	캐나다	15	인도	21	호주 멕시코	8	터키	66
6	터키	18	멕시코	14	아르헨	12	브라질 이스라엘	7	남아공	41
7	호주	16	인니	12	캐나다	11			호주	40
8	아르헨	14	터키	11	호주	9			아르헨	39
9	페루	12	호주	8	브라질	8			멕시코	37
10	멕시코	10	남아공	8	페루	7			한국	34

\* 주 :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임.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년~2005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인도로 총 173건을 기록

- 2002년부터 2005년 동안 10대 피소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피소국 현황>

순 위	'02		'03		'04		'05		누계치 (‘02+‘03+‘04+‘05상)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중국	51	중국	52	중국	49	중국	57	중국	209
2	한국	23	미국	21	한국	24	인니	14	한국	75
3	러시아	18	한국	17	대만	21	대만	13	대만	63
4	대만	16	일본	16	미국	14	인도		미국	58
5	인도	16	인도	15	태국	9	태국	12	인도	51
6	일본	13	대만	12	브라질		한국	11	일본	45
7	인니	12	EC	10	인도	미국	인니		42	
8	태국	12	인니	8			일본	태국	40	
9	미국	12	말련	8	인니	8	일본	러시아	31	
10	EC	10	태국	7				러시아		말련
							EU	5	EC	28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임.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으나, 중국 등 주요 반덤핑 피소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크게 낮아지지 않음.
-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 건수의 경우 2003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2004년에 잠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크게 감소하였음.

- 조사 개시된 반덤핑 조사건수를 대상품목별로 분류하면,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 철강/금속, 의류/직물 등이 주된 타겟인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산업	'02		'03		'04		'05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화학	136	43.6	94	40.5	93	43.4	70	36.6
철강/금속	96	30.8	52	22.4	36	17.0	34	17.8
의류/직물	6	1.9	14	6	21	9.9	24	12.5
전기/전자	9	2.9	14	6	14	6.6	18	9.4
제지류	7	2.2	20	8.6	8	3.8	6	3.1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의류/직물의 경우 2004년부터 2005.1.1일부로 해제되는 섬유쿼터에 대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동 증가추세가 섬유쿼터해제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5년에도 많은 수의 신규조사가 개시됨.

[ 세이프가드 ]

-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건수가 기존의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감소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현황>

(단위 :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5.1	계
조사개시	2	5	3	10	15	25	12	34	15	14	7	6	148
SG발동	-	1	3	4	6	7	9	16	15	4	5	2	72

\*주 '06년 자료는 '06. 5. 1일 기준

\*\* 자료 : Committee On Safeguard Practice, WTO

- 2001년, 2002년에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해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하였으나, 2003년 이후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철회로 감소추세가 이어짐.

- 세이프가드조치는 EU 등 전통적 반덤핑조치 활용국이 아닌, 개도국에서 주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임.

<세이프가드 주요 발동국 현황>

구분	인도	칠레	요르단	미국	체코	터키	에콰도르	한국	기타	계
조사개시	15	10	10	10	9	9	7	4	74	148
SG발동	8	6	5	6	5	2	3	2	35	72

\*주 조사개시건수 '95~'06.5.1누계

발동건수 '96~'06.5.1 누계

\*\* 자료 : Committee On Safeguard Practice,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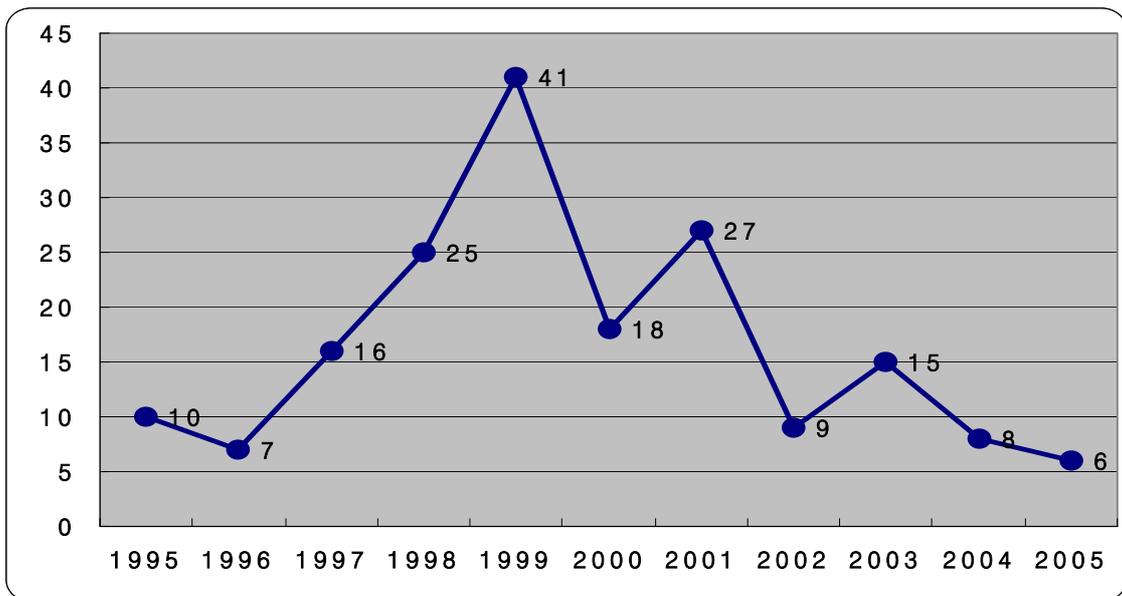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이프가드조치는 주로 개도국에서 자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선진국 중,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 등을 위해 세이프가드조치를 활용하였으나, 2002년 이후 세이프가드조사 개시 한 바 없음.
- 개도국의 세이프가드조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동 조치가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반보조금/상계관세 ]

□ 2003년 이후 신규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연도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단위 : 건)



\*주 :상기 건수 조사 개시 기준

\*\*자료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 상계관세 조치 발동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나, 반보조금 조사는 수출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조사하여야하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니게 됨.
- 각국 정부도 자국산업을 지원할 때 특정성이 없는 형태의 보조금지급을 위한 정책을 개발, 상계관세조치부과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음.
- 덤핑마진 계산보다 보조금 계산법은 아직 덜 발달된 상태이므로,

수입국 정부가 보조금 계산을 위해 덤핑 마진 산정법을 원용할 경우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등 비시장 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status)로 분류된 WTO 회원국의 경우에는 동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조사 개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캐나다, EC 등은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2006년 현재, 캐나다는 중국을 대상으로 3건의 상계관세 부과 중<sup>2)</sup>

☞ 캐나다무역재판소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중국산 카본 스틸 스크루 등 파스너에 대해 중국 정부의 보조율을 32%로 결정하고 품목에 따라 최고 170%의 반덤핑 관세와 함께 킬로그램당 18센트(약 U\$ 0.1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미국의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회 및 제조업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양국간 통상마찰 확대를 피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조치 발동 가능성 낮음.

- 美하원은 최근 중국 위안화 페그제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美통상법에 의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Currency Act)이나, 동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 자료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

## 섬유쿼터 해제 이후, 중국산 의류의 시장 점유율 급증<sup>3)</sup>

---

- 섬유쿼터제 2005.1.1일부로 전면 폐지
  - WTO 섬유협정(ATC)이 종료됨에 따라 각국은 유지하고 있던 섬유쿼터제를 2005. 1. 1일부로 완전 폐지함.
- 섬유쿼터 해제이후, 각국에서 중국산 의류의 시장 점유율 급격히 증가
  - 2006. 4월 쿼터해제 품목의 경우, 중국산 의류가 미국시장 점유율 49% 차지
    - 쿼터해제 전, 21%였던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65%로 3배 이상 확대된 반면,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의류수출국의 미국시장점유율은 급격히 축소
  - 중국산 의류의 시장점유율은 일본과 호주에서 75%, EU에서 74%를 기록하고 있음.
- 양국간 섬유협정으로 쿼터가 유지된 품목의 경우에는 점유율 상승 추이 보이지 않음.
  - 쿼터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국산 의류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8%에 불과하여, 쿼터가 해제된 분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3) 자료 :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

### <美-中 섬유 협정 주요 내용>

- 협정 유효 기간 : 2006. 1. 1 ~ 2008. 12. 31(3년간)
- 협정 대상 품목 : 총 34개 품목
  - 핵심품목 : 면 니트셔츠(cotton knit shirts), 인조사 니트셔츠 (man-made fiber knit shirts) 등 14개 품목
  - 비핵심품목 : 핵심품목 외 20개 품목

○ 주요 내용

- 연도별 수입제한증가율

연도 수입제한증가율	2006	2007	2008
핵심 품목	5.5%	7.8%	10.3%
비핵심 품목	8~10%	12.5%	15~16%

- 섬유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 체결 당시 양국의 입장

- 美정부 및 업계에서는 동 협정 내용에 대해 크게 환영
- 중국 언론은 동 협정의 내용에 대해 불만스러움 표시

□ 美 섬유업계, 정부의 강력한 대응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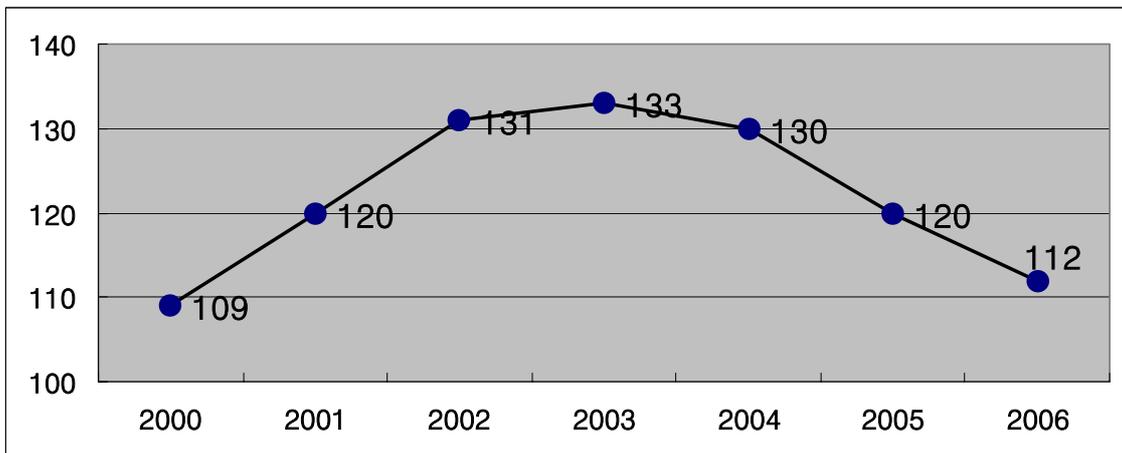
- 현 美-中 섬유협정은 2006.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3년의 효력을 가짐.
- 美 섬유업계는 WTO협정 차원에서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美정부에게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WTO/DDA 협상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 2. 2006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 가. 총괄

- 2006. 6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12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 중인 것은 99건이며, 조사 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 중으로 집계)은 13건임.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 추이>



\*주: 기존에 미과약된 조치들을 반영하여, 상기 표에서 2002년 이후의 총 對韓 수입규제건수는 '2005년 대한수입규제 동향 및 2006년 전망'(2005.12)과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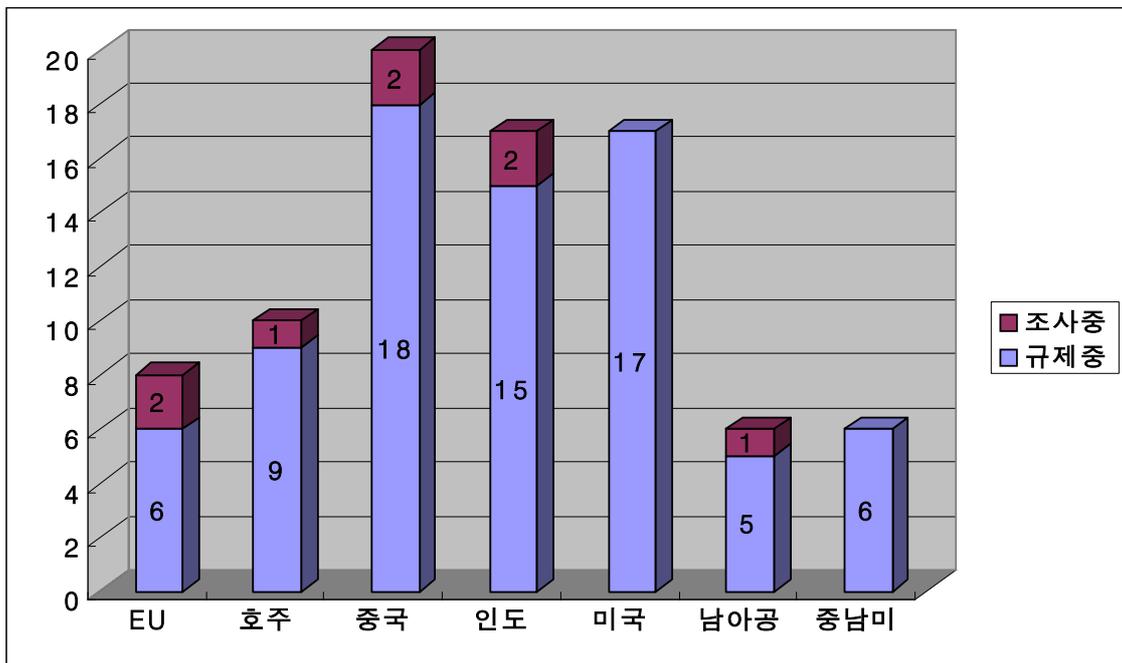
\*\*주: 2005년 집계 시 총 건수에 미포함된 인도네시아의 Ceramic Tableware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하고, 미과약된 인도네시아의 담배용라이터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그리고 캐나다의 자전거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반영

- 2002년까지 계속되던, 수입규제 확산세가 2003년, 2004년에 걸쳐 잠시 주춤한 후, 2005년 들어 급감하기 시작함.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 6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상계관세 3건 등임.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3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이 30건,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8건, 기타 12건 등임.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14건) 및 인도(11건), 철강제품은 미국(12건) 및 호주, 캐나다(각 3건), 섬유류는 터키(5건) 및 인도(4건), 전기·전자는 EU(4건)에서 주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및 인도 17건, 호주 10건, EU 8건 순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주 : 중남미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포함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로 도입된 수입규제 조치는 총 4건임.

<2006년도 상반기 신규 피소 현황>

연번	조사개시	피 소 품 목	제소국가	유형
1	'06.1.2	Cast Glass & Rolled Glass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2	'06.1.11	칼라TV브라운관	EU	반덤핑
3	'06.1.8	동계관연결구류	캐나다	반덤핑
4	'06.6.8	HSS	호주	반덤핑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이며, 피소형태는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 등임.
- 2005년 상반기 중 개시된 신규수입규제 조사건수는 7건이었으나, 2006년 상반기에 개시된 건수는 이보다 감소한 4건으로 파악됨.

<연도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해당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신규피소건수	32	27	24	17	28	15	4
선진국	12	8	8	5	10	3	3
개도국	20	19	16	12	18	12	1

\* 자료 : KOTRA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 주 : 2005년 집계 시 총 건수에 미포함된 인도네시아의 Ceramic Tableware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하고, 미파악된 인도네시아의 담배용라이터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그리고 캐나다의 자전거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반영

\*\*\*주 : 2006. 6월 현재

- 2000년 이후, 개도국에 의한 수입규제조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6년 상반기 신규조치는 대부분 EU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임.
-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규수입규제조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남아공의 제지용지 등 하반기에 개도국에서 신규로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2006년 상반기 중 종료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2건임.

<2006년 종료 수입규제조치>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유형
1	미국	H형강(structural steel beams)	'06.3.28 (소급효)	반덤핑/ 상계관세
2	미국	스테인리스 스틸 앵글	'06.6.15 (소급효)	반덤핑
3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06.6	반덤핑
4	아르헨티나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06.6.1	반덤핑
5	EU	3.5인치 플로피디스크	'06.2.17	반덤핑
6	중국	골판지	'06.2.13	반덤핑
7	중국	EPDM	'06.2.9	반덤핑
8	인도네시아	담배용라이터	'06.1.19	세이프가드
9	호주	동관	'06.3	반덤핑
10	뉴질랜드	냉장고	'06.6.10	반덤핑
11	뉴질랜드	세탁기	'06.6.10	반덤핑
12	러시아	Electronic Filament Lamps	-	세이프가드

\*주 : Electronic Filament Lamps의 경우 규제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규제품목에서 제외함.

## 나. 국별 동향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6. 6월 현재, 총 6건(조사중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스텐레스 용접관 (7306.40)	반덤핑	'98.7	'98.12	'99.6	관세율 : 47.6% 일몰재심('03.5) 관세부과 연장('04.7)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8	'99.2	'99.9	관세율 : 40% 일몰재심 통해 관세부과 연장('04.8)
Suspension PVC (3904.10)	반덤핑	'00.6	'00.12	'01.6	관세율 : 42.31% '06.6.15 관세 부과종료 예정
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반덤핑	'00.10	'02.3	'02.9	관세율 : 10.4%
폴리에틸렌수 지용기(PET) (3907.60)	반덤핑	'05.4	'05.10	'06.2	관세율 : 19.7% 5년간 관세부과
백상지 (4810.92)	반덤핑	'05.8	'06.2	-	잠정관세율: 38.0% 잠정관세 부과는 당분간 유예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2006. 2월 한국산 PET에 대해 반덤핑최종판정

- 2005. 4월 조사개시되었던 한국산 PET 최종판정에서 덤핑혐의 및

이로 인한 산업피해를 모두 인정, 19.7%의 반덤핑최종관세부과를 결정

□ 2006. 2월 한국산 백상지에 대해 반덤핑잠정관세부과 결정

○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는 2005. 8월 덤핑혐의로 제소된 한국산 백상지에 대한 잠정판정결과를 발표

- 잠정판정결과 덤핑마진율이 38%로 인정되었으나, 잠정관세부과는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

## [ 뉴질랜드 ]

□ 2006. 6월 현재, 총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오일필터	8421.23.00	반덤핑	'04.7.20	'05.1.14	관세율 : JunHeung 12% KangNam 54% ShinSung 15% Yuil 155%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 2006년 상반기 중, 총 2건의 반덤핑관세부과조치 종료됨.

○ 2001. 6. 10일 반덤핑관세부과 최종판정을 받았던 한국산 냉장고 (HS코드 : 841810, 841821) 및 세탁기(HS코드 : 845011)에 대해 부과되던 반덤핑관세조치가 2006. 6. 10일부로 종료됨.

[ 대 만 ]

□ 2006.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고
Portland cement	2523.29.90	반덤핑	'01.6	'02.1	'02.4	관세율 : 110.99%~126.81%
	2523.10.90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 러시아 ]

□ 2006. 6월 현재 총 2건(조사 중 2건)의 세이프가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Big-Diameter Pipes	7304.10.9002/9009	SG	'05.2		
	7304.39.9990				
	7304.59.99.99				
	7395.11.0001/0002				
	0003/0009				
	7305.12.0001/0009				
	7305.19.0000				
	7305.31.0000				
	7305.39.0000				
	7305.39.0000				
730590.0000					
NaCN	2837.11.0000	SG	'05.10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 말레이시아 ]

□ 2006. 6월 현재 총 3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인쇄용지	4801.00	반덤핑	'03.1.16	'03.9.26	관세율 : 43.24%
무수말레산	2917.14	반덤핑	'04.6.10	'05.2.4	관세율 : 26.34%
PET칩	3907.60	반덤핑	'05.2.27	'05.10.21	관세율 : 17.09%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 멕시코 ]

□ 2006. 6월 현재 2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제외)	5503.2001 5503.22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93.8.19	관세율: 삼양사 제조, 수출시 3.74%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시 14.81% 제일합성 제조, 삼성 수출시 4.49% 기타 32%
폴리에스터 합성필라멘트	5402.3301	반덤핑	'99.12.22	'00.10.3	관세율: 16.03% '06.6.20 재심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제소 및 조사개시된 품목은 없음.

## [ 미 국 ]

□ 2006. 6월 현재 총 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2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상계관세 1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12건, 석유화학 2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규제일자	유형	품 목
'87.1.20	반덤핑/ 상계관세	<p>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재심 결과 '05. 11. 17과 '05. 11. 22 부로 각각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유지</li> <li>- 업체별 반덤핑 마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m Koo : 31.23%, Dae Sung : 6.11%, Hai Dong : 12.14%, Kyung Dong : 8.36%, Namil Metal : 0.75%, 기타 업체 : 8.1%</li> </ul> </li> <li>- 상계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 0.77%</li> </ul> </li> </ul>
'91.6.5	반덤핑	<p>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재심결과 '05.10.20 부로 반덤핑 관세 유지</li> <li>- 업체별 반덤핑 마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C : 13.92%, 기타 업체 : 21.5%</li> <li>· 코오롱-'96년 3번 연속 미소마진으로 제외</li> </ul> </li> </ul>
'92.11.2	반덤핑	<p>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C, 일몰재심(full five-year reviews) 개시 결정('05. 10. 4) 후 조사 진행중</li> </ul>
'92.12.30	반덤핑	<p>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p>

		- ITC, 일몰재심 공고('05. 9. 1) (notice of institution of reviews)
'93.2.23	반덤핑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 ITC, 일몰재심 긍정 판정 ('05. 9. 20) - DOC 명령('05. 9. 9) · Asia Bend: 21.2%, 기타 업체: 21.2%
'93.8.17	상계관세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 '05. 11월부로 2차 일몰재심 개시
'93.8.19	반덤핑	
'95.8.11	반덤핑	Oil country tubular goods - 1차 일몰재심 결과 '01. 7.25 부로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06. 6월 2차 일몰재심 개시
'98.9.15	반덤핑	Stainless steel wire rod ( '04.8.13 반덤핑관세 지속명령 개시)
'99.5.21	반덤핑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 ITC,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04.10. 21) - DOC, 반덤핑관세 지속명령 개시('05.7.18) · 포스코(6.08%), 기타(6.08%)
'99.7.27	반덤핑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 '05. 7. 25일 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결정
'99.8.6	상계관세	
'00.2.10	반덤핑/ 상계관세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 '05.12.6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결정 - 업체별 반덤핑/상계관세율 · 반덤핑 : Dongkuk Steel(2.98%), 기타(2.98%) · 상계관세 : Dongkuk Steel(2.36%), 기타(2.36%) (POSCO는 미소마진을 0.82%로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
'00.5.25	반덤핑	Polyester staple fiber - ITC, 2005.7.5 일몰 재심 개시 결정 이후,

		DOC에서 2005.8.5 관보 통해 반덤핑마진을 확정 · Sam Young Synthetics (7.91%), 기타 (7.91%)
'01.9.7	반덤핑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 '06.8 일몰재심 개시 예정
'02.3.7	반덤핑	Stainless steel bar
'03.8.11	상계관세	D-RAM - '05.9. 15 관보 통해 연례재심 결과 상계관세를 인상(44.29→60.44%) 잠정 판정
'03.10.1	반덤핑	Polyvinyl Alcohol
'04.1.28	반덤핑	PC 강선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조사개시 품목은 없음.

□ 2006년 상반기 중 H형강(structural steel beam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및 스테인리스 스틸 앵글(Stainless Steel Angle)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

○ H형강(structural steel beams) 반덤핑/상계관세 철회

- 2006. 3. 28일 한국산 H형강에 부과되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철회 공고

- 상계관세의 경우는 2005. 8. 14일, 반덤핑관세의 경우에는 2005. 8. 18일부터 소급 철회

○ 스테인리스 스틸 앵글(Stainless Steel Angle) 반덤핑 관세 철회

- DOC 산하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는 2006. 6. 15 관보를 통해 한국,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앵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 공고 (71 FR 34599)

\* 동 관세 철회 명령은 '06. 5. 18일 부로 유효

- 2006. 6월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조사 종료
  - 2005. 6월 개시되었던,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피해 없음을 이유로 종료
  - 미국 ITC 2006.6.19일 피해 없음 판정
    - 2006.7.5일경 종료일자와 함께 동 내용 정식 공고 예정

## [ 브라질 ]

- 2006. 6월 현재 총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나일론 6번사	5402.4110	반덤핑	'00.1.12	'01.6.28	관세율 : 5.2%~52.2% '06.6.28 종료예정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제소 및 조사개시된 품목은 없음.
- 현재 나일론 6번사에 대해 부과중인 반덤핑관세는 2006.6.28일부로 종료 예정
  - 한국산 나일론 6번사의 경우, 아르헨티나나 중국산 나일론 6번사와 비교 시 가격이 현저히 낮아, 브라질 국내산업으로부터 동 반덤핑관세부과조치의 연장 요청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조사당국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변동내용 통보가 없어, 당초판정결과에 따라 2006. 6. 28일자로 종료 예정

## [ 아르헨티나 ]

2006. 6월 현재, 반덤핑 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냉연강판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1.23. 7225.50, 7226.92	반덤핑	'01.7.19	'03.1.10	관세율 : 60.46%
아연철판	7219.49, 7210.61, 7212.30, 7212.50, 7225.92, 7225.99, 7226.94, 7226.99	반덤핑	'02.5.30	'03.5.27	관세율 : 49.67%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5407.61, 5407.69	반덤핑	'04.2.23	'05.8.22	관세율 : U\$7.59/kg (비텍스춰드) 관세율 : U\$6.56/kg

2006년 상반기 중, 한국산에 대해 신규제소 및 조사개시된 품목은 없음.

2006.6.1일부로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 2001.8.7일부터 한국산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HS코드 : 5408.22)에 대해 부과되던 반덤핑관세(kg당 FOB최저수출가 U\$8.73) 종료

## [ 이집트 ]

□ 2006년 5월 현재 총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치내용
타이어	4011	반덤핑	'98.9	'99.7.13	관세율 : 5.5%~17% (‘05.3.17일자로 ‘09.10.2까지 연장)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조사개시 품목은 없음.

## [ 인도 ]

□ 2006. 6월 현재 반덤핑 규제 16건(조사 중 2건포함)과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고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400259	반덤핑	'96.3	'96.12	'97.7	관세율 : US\$1,692.12~2,314.8/톤 '05.6.6일 중간재심 결과 금호석유화학 13.22%, 기타 업체 48.75%
아크릴 단섬유	5501.50 5503.30	반덤핑	'96.9	'97.10	'00.4	관세율 : US\$0.16~0.366/Kg '00.4 중간재심최종판정 '02.8월 일몰재심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 US\$0.225/Kg, 덤핑마진 16.53%
SBR (합성고무)	400219	반덤핑	'98.4	'99.4	'99.8	'04.7.28 일몰재심 최종 판정 관세율 : US\$0.0689/Kg 덤핑마진 8.55% * 현재 1900시리즈 우리나라 수출물량 없음
Sodium	283711	반덤핑	'99.3	'99.12	'00.6	'05. 9. 27 일몰재심 판정

Cyanide (NaCn)						EU는 대상에서 제외, 미국, 한국은 반덤핑부과 계속 관세율 : 3.71%~38%
EPDM	400270 400290	반덤핑	'99.8	'00.5	'00.9	관세율 : US\$2,418.5/MT
POY (Partially Oriented Yarn)	540242	반덤핑	'01.8	'01.11	'02.9	관세율 : US\$0.605/Kg
PIB (Poly Iso-Butylen)	390220	반덤핑	'01.9	'02.1	'02.10	관세율 : US\$1,037.77/톤
압연롤 (Forged Roll)	845530	반덤핑	'02.8	'03.1	'03.8	관세율 : US\$2,851.91/톤
가성소다 (Caustic Soda)	281511 281512	반덤핑	'02.5	'02.12	'03.9	관세율 : US\$295.27/톤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sulphite)	283110	반덤핑	'02.11	'03.4	'03.12	관세율 : US\$1,034.76/톤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283640	반덤핑	'02.12	'03.6	'04.2	관세율 : US\$9.45~123.86/톤
염화 메틸 (Methylene chloride)	290312	반덤핑	'03.2	'03.20	'04.8.18	관세율 : US\$34.43~42.42/MT
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290532	반덤핑	'03.8	-	'04.8	관세율 : US\$1,221.38/MT
폴리올 (Flexible Slabstock polyol :PPG)	390720	반덤핑	'02.5	-	'04.11	관세율 : US\$1,472.77/MT 덤핑마진 : 37.01~56.87%
폴리에스터	540243	반덤핑	'05.6	-	-	-

안		조사개시				
나일론 필라멘트사	5402	반덤핑 조사개시	'05.7	'06.2	-	잠정반덤핑관세율 : US\$3.82/Kg
녹말류	1108, 1903, 3505	세이프 가드	'04.7	-	'05.2	Sago, Modified Starches, Starch의 인도내 수입시 향후 3년간 가격기준으로 1차년도 33%, 2차년도 23%, 3차년도 13%의 긴급수입관세 부과

□ 2006년 상반기 중, 나일론 필라멘트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발표

○ 예비판정결과 U\$ 3.82/KG의 잠정반덤핑관세율부과

### [ 인도네시아 ]

□ 2006. 6월 현재, 2건의 반덤핑 규제 및 2건의 세이프가드 규제(조사 중 1건)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9.16	관세율 : 7~10% 재심 진행 중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 59.64%
Cast Glass & Rolled Glass	70031220 70031290 70031920 70031990 70032090	SG	'06.1.2	-	
Ceramic Tableware	6911 69112	SG	05.5.13	'06.1.4	1차년도 1,600Rp/kg 2차년도 1,400Rp/kg 3차년도 1,200Rp/kg

- 2006년 상반기, 1건의 신규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1건의 최종세이프가드 부과 조치 시행
  - 2006. 1. 2일, Cast Glass & Rolled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2006. 1. 4일, Ceramic Tableware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부과 결정
- 2006년 상반기, 담배용ライタ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2006. 1. 19일, 피해 없음을 이유로 2005. 7. 28일 개시되었던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 일 본 ]

- 2006. 6월 현재 반덤핑조치 1건, 상계관세조치 1건 등 총 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01.4.23	'02.7.27	관세율 : 0~13.5% 피소기업 : 삼영합섬, 성림, 대양산업, 휴비스 등
폴리에스터 합성필라멘트	5402.3301	반덤핑	'99.12.22	'00.10.3	관세율: 16.03% '06.6.20 재심

- 2006년도 상반기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신규제소 및 조사개시는 발생하지 않음.

## [ 중 국 ]

□ 2006. 6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는 총 20건(조사중 2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신문용지	4801.00.00 4802.61.10 4802.69.10	반덤핑	'97.11.10	'99.6.3	관세율 : 55~78% '04.6.30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발표
폴리에스테르필름	3920.62.00	반덤핑	'99.3.16	'00.8.25	관세율 : 13~46% 05.12.28 재심 부과기간5년연장 효성 : 26% SKC : 13% 도레이 새한 : 33% 기타 : 46%
스텐레스냉연강판	7219.31.00	반덤핑	'99.6.17	'00.12.18	2005. 4. 8일 중지 2006. 4. 8일 재개 관세율 : 17~58%
폴리우레탄발포제	2903.12.00	반덤핑	'00.12.20	'02.6.20	관세율 : 4~66%
폴리에스터단섬유	5503.20.00 5506.20.00	반덤핑	'01.8.3	'03.2.3	관세율 : 2~48%
폴리에스터칩	3907.60.11 3907.60.19	반덤핑	'01.8.3	'03.2.3	관세율 : 5~52%
아크릴레이트	2916.12.00	반덤핑	'01.10.10	'03.4.10	관세율 : 2~49%
아트지(동판지)	4810.13.00 4810.14.00 4810.19.00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 4~71%
무수프탈산(PA)	2917.35.00	반덤핑	'02.3.6	'03.9.6	관세율 : 0~66%
합성고무(SBR)	4002.19.11 4002.19.12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 0~38% LG대산유화 :

	4002.19.19				4.5%(재심결과 05.12.13)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 0~55%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 : 3~49% '05.2.3 재심개시 06.1.10재심판정 동양제철화학 : 4.05% 한국 FINE CHEMICAL : 5.08% BASF : 5.08% 기타 : 61.14%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3~144%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 32~96%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관세율 : 7~46%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관세율 : 28~184%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 119%
ECH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관세율 :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 4.0%
폴리우레탄	5402.49.20 5402.69.20	반덤핑	'05.4.13	-	'06.5.24 예비판정 잠정관세율 : 효성,동국무역, 태광산업 0% 기타 61.0%
Octanol	2905.16.00	반덤핑	'05.9.15	-	-

□ 2006년도 상반기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신규제소 및 조사개시는 발생

하지 않음.

□ 2006. 5월, 폴리우레탄에 대해 반덤핑잠정관세부과

○ 2005.4.13일 제소된 폴리우레탄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06.5.24일 최고 61.0% 세율의 반덤핑 예비공정판정을 내림.

- 한국의 경우, 효성, 동국무역, 태광산업 등이 0%, 기타 한국기업이 61.0%의 반덤핑잠정관세를 부과 받음.

□ 2006년 상반기 중, 한국산 핵산, ECH에 대해 최종반덤핑관세 부과

○ 2004.11.12일부로 조사 개시된 한국산 핵산에 대해 2006.5.12일 25~119%의 최종반덤핑관세부과

○ 2004.12.28일 조사 개시된 한국산 ECH에 대해 2006.6.28일부로 3.8~4.0%의 최종반덤핑관세부과

□ 2006. 2월, 한국산 골판지에 대해 부과되던 반덤핑관세종료

○ 2005.9.30일부터 부과되던 골판지(HS 코드 : 4804.31.00, 4804.41.00, 4804.51.00, 4805.24.00, 4805.25.00)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2006.2.13일부로 종료됨.

□ 2006. 2월, 한국산 EDPM에 대한 반덤핑조사철회

○ 2004.8.10일부터 개시된 한국산 EDPM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2006.2.9일부로 철회됨.

- 동 품목의 경우, 2005. 9월부터 13~35%의 반덤핑잠정관세를 부과 받고 있었음.

## [ 캐나다 ]

- 2006. 6월 현재, 캐나다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반덤핑 3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구조용강관	7306.30.10.23 7306.30.10.33 7306.30.90.23 7306.30.90.29 7306.30.90.33 7306.50.00.30 7306.60.90.12 7306.60.90.22 7306.60.99.29	반덤핑	'03.3.21	'03.11.17	관세율 : 89%
스테인리스강선	7223.00.11.00 7223.00.19.00 7223.00.20.0	반덤핑	'03.11.21	'04.7.30	관세율 : 181% (정상가격 미제출)
자전거	8712.00.00.12, 8712.00.00.20 8712.00.00.30, 8712.00.00.40 8712.00.00.50, 8712.00.00.90	SG	'05.2.10		
동제관연결구	741210, 741220	반덤핑	'06.6.8		

\* 자료원: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006.6.20

- 2006. 6월 동제관연결구에 대한 신규반덤핑조사 개시
- 캐나다 관세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 CBSA)은 Cello Product Inc.의 제소로 지난 6월 8일 한국, 미국, 중국산 동제의 관연결구류에 대하여 덤핑여부 조사 착수

## [ 태 국 ]

- 2006. 6월 현재,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및 열연강판에 대해 총 2건의 반덤핑규제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강판	7208	반덤핑	'02.7	'03.6.13	13.96%

	7211.13 7211.14 7211.19				
스테인레스 압연강판 (냉간압연품)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	반덤핑	'02.11	'03.3.24	51.54%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 [ 터 키 ]

□ 2006. 6월, 현재 6건의 반덤핑 규제(재심중 2건)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98.1.27	'99.11.30	관세율: 5.2 ~ 10.9% '04.11월 만료 후 재조사 실시 '06.5.18 반덤핑관세 재부과 결정 HK Corporation 5.7% Hyosung Corporation 5.2%, Tongook Corporation 5.5 %, Huvis Corporation 5.5 %, Saehan Industries Inc 5.5 %, Toray Saehan Inc 5.5 %, - All other companies 10.9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관세율: 11.9%~24.6% '05.3월 만료 후 재조사 진행중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6.28	관세율 : 33.7% '05.6월 만료 후 재조사 진행중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5407일부	반덤핑	'99.11.1	'02.2.13	관세율 : 14.64%~40%
금속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04.9.24	관세율 : U\$2.2/kg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0.20	반덤핑	'04.12.9	'06.1.27	관세율 : 6.5%

□ 2006년 상반기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는 개시된 바 없으나, 일부 품목의 우회수출에 대해 조사 중임.

- 한국 수출품의 경우, 터키 국내시장에 피해를 줄 만큼의 저가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규제대상국가가 아닌 상태이며,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대부분 만료된 건에 대한 재조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다만,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HS 코드 : 5407)의 경우 한국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일부 한국기업들에 대해 높은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
  - 동품목과 관련, 한국 업체들은 3.51~40%의 상이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바 있음.
  - 이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받은 한국기업들이 저율의 반덤핑 관세를 받은 한국기업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2006. 3월 터키 정부 조사를 실시함.
  - 2006. 6월 터키 정부는 관보를 통해 한국의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2002년 저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기업에 대해 한국 기업들 중 최고 수준인 4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또한, 터키정부는 2006년 6월 8일 관보를 통해 폴리에스터 장섬유 식물(HS 코드 : 5407)와 관련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업체들의 필리핀을 통한 우회수출 혐의에 대해 조사 개시를 공고하고 조사

## [ 파키스탄 ]

- 2006. 6월 현재 2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VC Resin	3904.10	반덤핑	'04.6.26	'05.2.24	관세율 : 40.18%
Polyester Filament Yarn	5402.33 5402.43	반덤핑	'05.5.12	'06.3.17	관세율 효성 29.07% 동국 6.92%

- 2006년 상반기 중 신규 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 2006. 3월, Polyester Filament Yarn에 대해 반덤핑최종관세 부과
  - 2005. 5월 조사 개시된 한국산 Polyester Filament Yarn에 대해 2006.3.17일부로 반덤핑 최종관세가 부과됨.
  - 관세부과기관은 '05.11.12일부터 5년간임.

## [ 호 주 ]

- 2006, 6월 현재 총 10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현황>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백판지	4810.13.90/56	반덤핑	'04.12.15	'05.7.27	

	4810.19.90/57				관세율 : 31.7%
	4810.29.90/64				
	4810.29.90/80				
	4810.99.00/85				
철/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52.00/41	반덤핑	'03.8.20	'04.4.2	
폴리에틸렌 (HDPE)	3901.20.00/03	반덤핑	'02.10	'03.12.18	
폴리에틸렌 (LDPE)	3901.90.00/06	반덤핑	'02.10	'03.12.3	'05.9.23, 연례 재심 결과 일부 조정 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대외비임
폴로이스	3907.20.00/36	반덤핑	'01.3	'02.4.27	
EPS	3903.11.00/12	반덤핑	'92.1	'92.11.4	
PVC	3904.10.00/18	반덤핑	'99.4	'00.3.24	'05.11.9 재심 완료 관세부과기간 5년 연장
U,I형강	7216.31.00/30 7216.32.00/31	반덤핑	'01.4	'02.7.6	
세탁기 <sup>4)</sup>	8450.11.00/40/0 3/04	반덤핑	'02.7	'03.9.18	
	8450.20.00/08				
HSS	7306.30/60	반덤핑	'06.6.8		

□ 2006. 6월 한국산 HSS에 대해 신규반덤핑조사 개시

- 2006.6.8일부로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HSS에 대해 덤핑여부 조사개시
- 동 품목은 2005년 반덤핑조사종결조치가 최종인정('05.10.21)된 바

4) '05.7.13, 재심시 덤핑마진을 '0'으로 조정  
(덤핑규제 자체는 유지하되 그간 지불하였던 덤핑 관세에 대해 환급조치 예정으로 알려짐)

있으나, 호주업체의 조사요청이 있어 2005년 한해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개시

□ 2006. 3월 한국산 동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 2006.3.22 한국산 동관(Copper tube, 7411.10.00/11)에 대한 반덤핑조치종료 결정

## [ E U ]

□ 2006년 6월 현재, 반덤핑 7건(규제중 5건, 조사중 2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CN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ET	3907.6020 ex 3907.6080	반덤핑	'99.11.6	'00.11.30	'05.12.1 일몰재심 및 부분중간재심 공고
PET 필름	3920.6219 3920.6290	반덤핑	'00.5.27	'01.8.23	'05.12.15 종료공고 ( '06.8.24 종료예정)
철강제 관련결구류	ex 7307.9311 ex 7307.9319 ex 7307.9930 ex 7307.9990	반덤핑	'01.6.1	'02.8.24	'03.5월 관세율인하
칼라TV	ex 8528.1252 ex 8528.1254 ex 8528.1256 ex 8528.1258 ex 8528.1262 ex 8528.1266	반덤핑	'92.11.25	'95.3.27	관세율 : 15%
폴리에스테르	5503.20	반덤핑	'99.10.7	'00.12.28	'05.12.22

단섬유(PSF)					부분중간재심공고
양문형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	잠정관세율 : 삼성 4.4% 대우 9.1% LG 14.3%
칼라TV브라운관 <sup>5)</sup>	8540.1111 8540.1113 8540.1115 8540.1119 8540.1191 8540.1199	반덤핑	'06.01.11	-	
D-RAM	8542.2111 8542.2113 8542.2117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 8473.3919 ex 8473.5010	상계관세	'02.7.25	'03.8.11	관세율 : 34.8% '06.3.18 부분중간재심 공고

□ 2006. 1월, 한국산 칼라TV브라운관에 대해 신규반덤핑조사 개시

- 유럽불공정거래대책반(Taskforce against Unfair Business in Europe, TUBE)이 2005.11.29일 신청한 제소가 받아들여져, EU집행위원회는 2006.1.11일자로 크기에 관계없이 전 품목의 Cathoderay color television picture tube에 대해 조사개시함.

□ 2006. 3월,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잠정반덤핑관세 부과

- 2005.6.2일자로 조사개시 되었던 400리터 초과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2006.3.2일부로 잠정반덤핑관세 부과

5) 우리나라 칼라TV브라운관 중 17인치이하 소형은 이미 2000. 4. 27일(잠정반덤핑관세)부터 반덤핑규제(19.7%)를 받았으며, 2005. 10. 21일부로 최종종료된 바 있음.

- 삼성전자 4.4%, 대우전자 9.1%, LG전자 14.3%

□ 2006. 2월부로 3.5인치 플로피디스크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종료

○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는 1992.9.18일 조사가 개시되어, 1994.9.10일자로 반덤핑관세(8.1%)가 부과되었으나, 2006.2.17일부로 반덤핑관세부과 종료됨.

### 3. 2006년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 가. 총괄

- 2006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무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IMF(2006.4)는 2006년 세계경제가 4.8%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05년의 성장률이자, 기발표 예측치인 4.3%보다 0.5%포인트 증가한 것임.

<세계경제성장률추이>

(단위 :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평균치
3.6	4.1	4.2	2.6	3.7	4.6	2.5	3.0	4.0	5.1	4.3	4.8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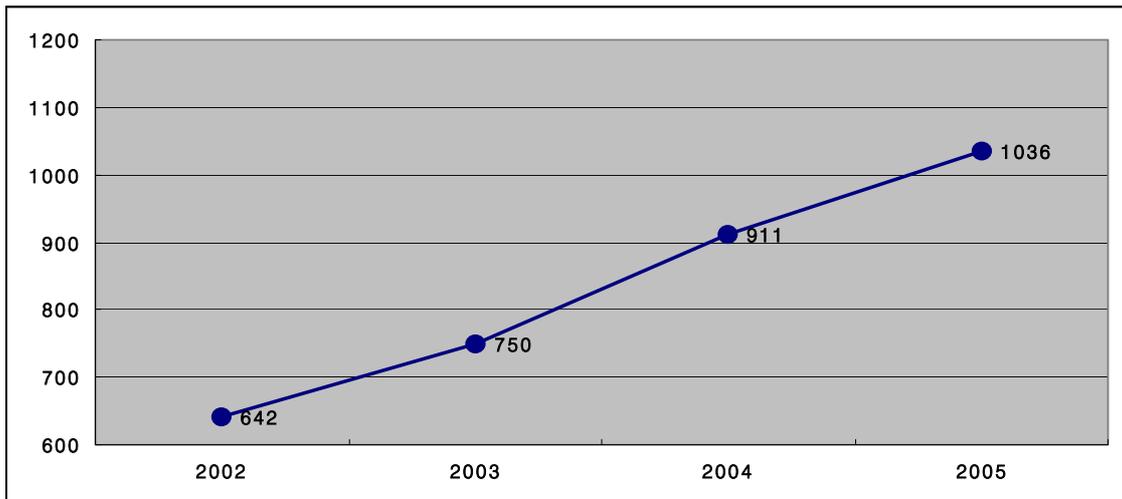
\*주 : '06년 예측치

\* 자료 : IMF

- 세계무역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무역추이>

(단위 : 백억불)



\* 자료 : IMF

-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미 FRB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연착륙 국면 돌입 등으로 체감경기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세계적인 자유무역 확산 추세

- 2006. 3월 기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sup>6)</sup>
- 대표적 對韓수입규제국가들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여 자유무역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수입규제조치도입은 감소될 전망이다.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수입규제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일부국가에서 국내산업의 요구나 실업 감소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신규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 각국의 수입규제조치도입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대체로 중국산 저가수입품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
- 그러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경계강화로 우리상품에 대한 동반규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지역의 경우 중국산 의류에 대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동 여파로 한국산 의류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있음.
- 남아공의 경우, 한국산 제지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용안정책의 일환으로 신규조치도입이 우려됨.

6) 자료원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in Force

- 인도네시아의 철강, 석유 산업계는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정부에 호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나. 주요국별 전망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남아공정부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중이나, 높은 실업률해소를 위해 고용창출규모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정책을 시행 중
  - 남아공은 1994년 경제재제 해제 이후,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해,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FTA와 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6.7%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섬유, 철강, 제지업 등 고용창출규모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정책을 실시 중
- 한국산 인쇄용지 및 밸브류에 대해 신규수입규제조치 도입 우려
  - 우리나라 인쇄용지의 對남아공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남아공 국내산업의 신규반덤핑제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최근 남아공 제지업경기하락추세로 인해 공장을 폐쇄하거나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해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음.
  - 밸브류의 경우에도 우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아공 밸브협회에서 남아공 정부에 동산업의 보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수입규제조치가 우려됨.

## [ 뉴질랜드 ]

-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확대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공산품을 수입하고 자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 및 낙농제품의 수출에 주력
- 뉴질랜드는 농업, 축산업 그리고 임업 등 1차 산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취약하여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보호와 고용유지 등을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등의 규제를 시행 중
- 우리나라 상품 중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입품은 목재, 낙농제품, 소고기 등 1차 산품이 주종인 반면,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뉴질랜드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적어 우리상품에 대한 신규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음.

## [ 대 만 ]

- 대만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
- 2005년 하반기부터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또한 자국의 제품 및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규제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러시아 ]

-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세 및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최근 4년간 러시아는 고유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4~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06. 4월부터는 한시적으로 러시아에서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 설비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촉진을 통한 자국산업육성책을 사용하고 있음.
    - 러시아의 경우 2006년 현재 수입상품에 대해 7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자국상품은 18개국에서 110개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 국내적으로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우리나라 상품 중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 [ 말레이시아 ]

- 교역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
  - 말레이시아는 중간재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입규제제도 활용이 미미한 편임.
  - 우리나라와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원유, LNG 등을 수출하고 전자부품과 철강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마찰가능성이 낮은 편임.
- 우리나라 상품 중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주력수출품목이 부진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특별히 신규조치가 도입될 만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미 국 ]

-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도 1~4월중 U\$2,544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동 기간(2006. 1월~4월) 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U\$57억에서 U\$4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대한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반전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상존
- 미국 행정부가 외교적 채널을 통해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마찰을 해소하려는 입장이어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발동 가능성은 낮을 전망
  - 지난 5월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명을 보류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마찰의 확대를 피하는 대신 중국의 개혁성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정책방향 선회
    -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회 및 제조업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협의 등의 외교적인 채널을 활용할 것임을 천명
    - 의회 자체적으로 “Currency Act” 등의 보호주의적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美행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자유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지난 2월 2일 개시된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은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 요건 완화 추진

○ 한국 측은 한미간 FTA 타결 시, 한국산의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미국의 반덤핑 조치 발동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자 17개 협상 분과 중 무역구제 분과를 별도 설치하여 기존보다 완화된 발동 요건 요구

○ 그러나, 美업계 및 의회에서 무역협정을 통한 미국 무역구제절차 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협상 타결 시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완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임.

- 7월 개시되는 제 2차 협상부터는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긍정적인 결과 도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美-中섬유협정 결과로, 한국산 기능성 패브릭(Category 229, HTSUS Chapter 59) 수입이 급증, 對美 수출량 주의가 요구됨.

○ 지난 4월 20일 한미 FTA 공청회에서 AMTAC(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美-中섬유협정 결과로 한국산 기능성 패브릭 對美 수출이 반사이익을 받음.

- 2006년 1~4월 중 한국의 기능성 패브릭 對美 수출액은 HS59 기준 US\$3,659만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44% 증가

<기능성 패브릭 국가별 대미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국명	2004	2005	2006(1~4)
캐나다	364.880	398.930	138.006(3.25)
멕시코	97.247	113.345	39.130(9.64)
중국	90.729	121.385	38.849(-7.10)
독일	117.744	108.943	37.002(5.28)
한국	83.130	95.711	36.950(26.44)

일본	106.542	117.550	35.908(-12.93)
기타	377.492	415.168	147.851
총합	1,237.764	1,371.032	473.696(5.79)

\* 주 : 괄호 안은 전년 동기대비 수입 증가율(%)

- 중국산 다음의 타겟이 한국산 패브릭이 되지 않도록 대미 수출 물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멕시코 ]

### □ 멕시코의 개방정책

-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통상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대외무역 시장개방으로 요약됨.
  - 현재 멕시코는 43개국과 12개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오는 7월의 선거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개방정책이 폐쇄정책으로 전환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중도우파 성향을 가진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 Felipe Calderon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도좌파성향의 민주혁명당(PRD) Andres Obrador 후보가 집권할 경우, 국내산업보호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섬유, 안정기 등에 대한 제소 우려

- 최근 멕시코의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음.

- 한국산 품목의 수출증가 시,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음.
-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신발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관련업계에 서는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 구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여파로 한국산에 대한 규제 가능 성 이 있음.
- 멕시코 정부는 현재 중국산 안정기(HS 코드 : 8501, 8548)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 전기제조업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 안정기에 대한 제소 가능 성도 존재

## [ 브라질 ]

### □ 브라질정부의 수출촉진정책

- 브라질 정부는 1998년부터 수출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3. 1월 취임한 톨라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당초 계획했던 2006년 수출 1,000억불 돌파라는 목표를 2005년도 조기달성한 바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과도한 국내산업보호가 교역확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 단, 철강 등 경쟁력을 기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관세 인하

등 시장보호를 완화시키려는 입장임.

□ 한국산 상품에 대해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한국산 상품의 경우에는 특별히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이 없음.

## [ 아르헨티나 ]

□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세 지속과 교역 확대 추세

- 2005년도의 경우, 9.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8.5%정도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발맞추어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교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도의 경우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4억달러, 수입은 5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한국산 의류 수출급증 시 규제 가능성 있음.

- 자본재, 원부자재 등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활성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규제가 심하지 않으나, 의류·완구 등은 수입대체화 정책을 실시 중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와 업계는 브라질산 및 중국산 품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 우리 품목의 경우 동반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 [ 이집트 ]

### □ 이집트의 시장개방정책

- 현 이집트 내각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무역자유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과도한 수입규제조치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
- 다만,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일시적인 반덤핑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 □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수입규제조치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주요 수출품목은 이집트가 지향하는 산업화와 수출입국화에 필수불가결한 부품류, 원부자재, 그리고 기계설비류 등이어서, 한국산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 인 도 ]

### □ 인도의 자유무역확대

- 인도는 지속적으로 관세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주요 무역국과의 FTA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입장임.
- 2006년도 기본관세를 2.5% 인하한 바 있음
- 태국, 싱가포르 등과 FTA를 기체결하였으며, 한국과도 협상중임. 2007년에는 ASEAN과 FTA를 체결할 예정

□ 최근 2~3년간 인도의 반덤핑조사 건수 감소 추세

- 인도는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이나, 최근 2~3년간 반덤핑조사 건수 감소 추세에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개시를 하지 않는 다는 입장임.

□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인도의 주요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그리고 철강제품 등임.

- 2006년 들어 석유화학, 섬유 부문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품목에 새로운 수입규제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음.

- 철강제품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강재나 대형파이프라인용 제품 등 특수제품이 많아 수입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음.

- 최근의 수입규제 조치는 중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2006년 상반기에 중국산 Steel Wheel, Saccharin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움직임 강화

-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5. 10월 100% 유가인상을 단행한 바가 있는데, 그 후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위축으로 제조업부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7)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중국 등 경쟁국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공식적 수출 뿐 만 아니라, 밀수 등 비공식적 방법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 그 결과, 철강부문에서는 국영제철회사인 PT. KRAKATAU사에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7개 철강수출국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
- 또한 섬유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 섬유연합회(API)에서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조만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등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세이프가드 우려 대상 품목 >

품목	HS 코드	유형	진행 상황
Hot-Coil	7208	SG	금년 4월, 인도네시아 국영철강기업인 KRAKATAU에서 중국 한국 등 7개국 제조 (한국은 POSCO 제품) 현재 조사개시 검토 중 7월 초에 개시여부 결정
Garments(의류)	6103, 62류 전반	SG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에서 청원 추진 중 조사개시 가능성 낮음

## [ 일 본 ]

### 일본의 규제완화 정책

- FTA 체결 확대, 각종 경제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서 수입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추진
-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

## [ 중 국 ]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방지에 주력

- 중국은 최근 자국내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대처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반덤핑 등의 피소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기업이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음.

### 한국산 화공품, 철강제품에 대한 신규반덤핑 규제 우려

- 무기화학품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2005년도 40.6%, 2006년도(1~5월) 53.6%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우려됨.
- 최근 중국 내 부동산과열 단속을 통한 건축수요일시감소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재고가 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철강제품수출시 주의를 요함.

## [ 캐나다 ]

### □ 캐나다, 중국·인도·한국과 교류강화 노력

- 중국, 한국, 인도로 대표되는 '이머징 마켓'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력강화를 캐나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캐나다 정부는 한국 및 일본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강화 뿐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내 입지구축을 토대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수출시장 확대 목표

### □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한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기술기반의 2차 산업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캐나다는 광물, 목재, 농축산물 등 1차 산업제품들을 위주로 수출
- 한국과의 지속적인 FTA협상 진행과정에 있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별다른 견제는 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자동차 업계 등이 무역수지불균형현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산 수입증가에 대한 캐나다업계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태 국 ]

### □ 태국의 경제성장률전망치 하향 조정

-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에서는 2006년 GDP성장전망치를 4.5~5.5%에서 4.2~4.9%로 하향 조정
- 세계경제침체, 고유가, 높은 인플레이션, 정치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경기하향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

- 2006. 6월 현재, ASEAN 및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 FTA가 발효중에 있으며, 일본, 미국, 인도, 바레인, 페루, 그리고 파키스탄 등과 FTA 협상 중에 있음.
- 경기하향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주요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 파키스탄 ]

### □ 경제개방을 통한 성장 추구

- 파키스탄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자국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수입규제 강화 보다는 개방에 무게를 둔 정책방향이 예상되나, 자국생산 기반이 비교적 확충된 산업부문에 대한 보호 정책도 일부 병행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산 섬유, 의약품에 대한 신규수입규제 우려존재

- 2006. 6월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음.
- 그러나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 섬유, 의약품 등 현지생산이 비교적 활발하고, 관련 협회들이 조직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음.

[ 호 주 ]

□ 자유무역 확대 추진

- 호주는 다자간 협상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싱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중국, ASEAN, 일본 등과도 본격 협상 중이거나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임.
- 호주의 다자간 협상확대는 아시아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호주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됨.

□ 전반적인 對韓 수입규제는 현황유지 내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이 항시 반덤핑제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중국 등 한국의 경쟁국들로부터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예년처럼 한국산 상품이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E U ]

- EU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경쟁력강화는 시장개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임.
- 불공정교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상품 중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규제가능성에 대해 논의되는 바 없음.
- 2005년 수출액 13억6천7백만달러를 기록하면서 對EU 수출품목 중 6위를 차지
- 2005년에 202.6%의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2006. 5월까지의 수출증가율이 작년동기대비 269.4%를 기록하면서 對EU 수출품목 중 4위로 부상

## ## 첨부

### <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

(2006. 6월 현재)

국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남아공	6(1)	0	0	0	6(1)
뉴질랜드	1	0	0	0	1
대만	1	0	0	0	1
러시아	0	0	0	2(2)	2(2)
말레이시아	3	0	0	0	3
멕시코	2	0	0	0	2
미국	12	1	4	0	17
브라질	1	0	0	0	1
아르헨티나	3	0	0	0	3
이집트	1	0	0	0	1
인도	16(1)	0	0	1	17(2)
인도네시아	2	0	0	2(1)	4(1)
일본	1	1	0	0	2
중국	20(3)	0	0	0	20(2)
캐나다	3(1)	0	0	1(1)	4(2)
태국	2	0	0	0	2
터키	6	0	0	0	6
파키스탄	2	0	0	0	2
호주	10(1)	0	0	0	10(1)
EU	7(2)	1	0	0	8(2)
합계	99(10)	3	4	6(4)	112(13)

주 :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6 .6월 현재)

국가	철강	전기전자	화학	섬유	기타	합계
남아공	2	0	3	0	1	6
뉴질랜드	0	0	0	0	1	1
대만	0	0	0	0	1	1
러시아	1	0	1	0	0	2
말레이시아	0	0	2	0	1	3
멕시코	0	0	0	2	0	2
미국	12	1	2	1	1	17
브라질	0	0	0	1	0	1
아르헨티나	2	0	0	1	0	3
이집트	0	0	0	0	1	1
인도	1	0	11	4	1	17
인도네시아	1	0	1	0	2	4
일본	0	1	0	1	0	2
중국	2	1	14	2	1	20
캐나다	3	0	0	0	1	4
태국	2	0	0	0	0	2
터키	0	0	1	5	0	6
파키스탄	0	0	1	1	0	2
호주	3	1	5	0	1	10
EU	1	4	2	1	0	8
합계	30	8	43	19	12	112

##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기획조사

번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 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 □ 무공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중국 중서부지역 환경시장을 일군다	2006.6
--------	--------------------	--------

## □ 산업리포트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작 성 자

◆ 통상전략팀 안혜미

## 2006년 상반기 對韓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